

‘철도 원팀코리아’,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사업 본격 참여

-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와 현지 MOU... 철도 인프라 및 차량 운영·유지보수 노하우 전수, 고속철도 건설과 철도관제센터 신설 등 K-철도 협력 ‘첫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사장 한문희),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대한민국 대표 철도기관으로 구성된 ‘철도 원팀코리아*’가 11월 20일(월)부터 11월 22일(수)까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 3개 기관 : (코레일) 철도운영, (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현대로템) 차량제작

○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한 ‘재건협력 원팀코리아’(단장 원희룡 장관)가 우크라이나를 최초로 방문해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 철도 분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철도 분야 공공·민간기업이 함께 원팀코리아를 구성해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하고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면담 및 재건 필요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였다.

□ 우선, 11월 20일(월) ‘철도 원팀코리아’는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와 철도 재건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총 2건) 한국 코레일 -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한국 국가철도공단 -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원팀 코리아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발표한 ‘6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철도노선 고속화’ 사업과 추가 사업을 포함한 총 7개의 철도 재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市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 철도노선 고속화(키이우~폴란드 등)

**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구간 고속철도건설, △기존 선로(오데사~이즈마일~레니) 용량 증대 사업, △철도교통관제센터 신설, △고속철도 운영 및 차량 유지보수 인력 양성 공동 연수, △ 철도차량 유지보수 △철도차량 중수선 기지 건설 등

- 이를 위해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현대로템은 상호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각자의 전문성을 감안해 사업역할을 정립하였다.
 - 우선, 고속철도 건설을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은 ‘키이우~폴란드 국경구간 고속철도 건설’과 ‘오데사~이즈마일~레니 철도용량 증대 사업’, ‘철도교통 관제센터’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맡는다.
 - 고속철도 운영 및 차량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은 운영사의 관점에서 철도 재건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특히,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분야인 철도 운영·유지보수 인력 확보를 위한 연수사업에 대해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와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 철도차량 제작 전문기업인 현대로템은 신규 철도차량(120량)의 제작 및 유지보수와 철도차량 중수선 사업을 수행한다.
- ‘철도 원팀코리아’와 리아셴코 예브헨(Liashchenko Yevhen)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사장은 양국 철도의 탄탄한 협력 관계 구축에 뜻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철도재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철도 원팀코리아’는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의 교통시설과 관제센터 등 철도 현장을 11월 21일(화)에 방문하여 재건지원 필요사항을 직접 확인하였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망을 개통한 이후 그간 훌륭하게 철도를 운영한 철도 선진국으로서, 지난 9월 우크라이나 원팀코리아 활동 이후 철도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재건사업에 진출하는 뜻깊은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 “철도 분야의 선도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코레일 한문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두 나라 철도기관 사이에 신뢰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건설, 운영, 차량제작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철도재건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임종일 철도공단 부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국 철도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에 한국 기업이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신형 (044-201-3516)
		담당자	서기관	김영지 (044-201-3517)
<공동>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원만 (044-201-3938)
		담당자	사무관	현기창 (044-201-3947)
<공동>	한국철도공사 해외남북철도사업단	책임자	처 장	황재식 (042-615-5651)
		담당자	부 장	이민석 (042-615-5657)
	국가철도공단 신성장사업본부	책임자	처 장	우현구 (042-607-3411)
		담당자	부 장	황희정 (042-607-3422)

